

노래방에서 댄스 메들리를 제대로 한 번 돌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른다. 한 곡 끝나자마자 후렴이 다시 터지고, 마이크를 주고받는 손이 분주해지고, 방 안의 온도가 한두 도는 더 올라간다. 공연 무대처럼 무대 조명과 인이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짧은 10분을 촘촘하게 엮어내면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 퍼펙트노래방처럼 방음과 사운드가 안정된 곳에서는 그 몰입감이 한층 더 커진다. 강남 쪽에서 퍼펙트가라오케나 강남퍼펙트를 즐겨 찾는 단골들 사이에서도, 메들리는 분위기를 여는 확실한 열쇠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여기서는 노래방 시스템과 실제 사람 목소리를 기준으로, K-팝 댄스 메들리를 현장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요령을 공유한다. 단순한 곡 추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박자와 조합의 감각, 호흡 관리, 마이크 운영, 점수 모드와 반주 세팅, 서로의 텐션을 잇는 타이밍까지, 방 안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법을 위주로 풀어낸다.

메들리가 방 분위기를 잡는 이유

댄스곡 메들리는 에너지 흐름을 설계한다. 처음부터 최고속으로 내달리면 두 세 곡 만에 모두 지친다. 반대로 예열이 길면 집중력이 풀린다. 이상적인 흐름은 세 단계로 나뉜다. 가벼운 후렴 샘플로 몸을 깨우고, 메인 파트로 박자와 구호를 확실히 붙이며, 마지막에 키 포인트 한 방으로 방을 터뜨리는 방식이다. 이때 곡 길이를 통째로 부르기보다는 45초에서 90초 내로 잘라 쓰는 편이 호흡과 집중에 유리하다. 후렴 - 브릿지 - 후렴, 혹은 랩 하이라이트 - 후렴 정도가 가장 깔끔하게 넘어간다.

좋은 메들리는 노래 실력의 격차도 자연스럽게 덮어 준다. 고음 구간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구호, 혹은 애드립을 맡기고, 랩이 빠른 곡은 평소 랩을 즐기는 멤버에게 한정판처럼 넘겨 주면 된다. 누가 어떤 파트를 맡을지 정해놓으면 마이크가 멈추는 공백이 줄어들고, 메들리의 텐션이 끊기지 않는다.

성공하는 메들리의 원리, 기술적으로 풀어 보기

박자는 관성이다. BPM이 비슷하면 다음 곡 진입이 편하다. K-팝 댄스의 큰 흐름은 대체로 두 구간으로 묶인다. 숨을 고르며 출발하기 좋은 95에서 110대, 그리고 점프와 떼창이 쉬운 120에서 130대다. 시스템에 따라 템포가 미세하게 다르게 재생될 수 있으니, 노래방에서 체감한 리듬감을 기준으로 묶어 두면 전환이 매끄럽다. 예를 들어, 미디엄 템포의 R&B 기반 곡을 두 곡 정도 붙인 뒤, 네 번째 곡에서 비트를 한 단계 올리면 박수와 점프가 막힘없이 따라온다.

키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반주 전환의 첫 소절을 저음으로 깔고 올라가는 곡을 다음에 두면 성대가 편하고, 반대로 고음으로 치솟는 후렴이 나오는 곡 다음에는 랩 중심의 곡이나 콜 앤 리스폰스가 많은 곡을 배치해 주면 과한 연속 고음으로 목이 쓰는 걸 피할 수 있다. 남녀 혼성 파티면 남성 키의 랩 곡 다음에 여성 키의 후렴형 곡을 연결할 때, 한 사람에게 고음을 몰아주지 말고 파트를 나눠서 받쳐 주는 방식이 좋다.

후렴 타이밍은 결정적이다. 대부분의 인기곡은 40초에서 60초 사이에 첫 후렴이 열린다. 메들리에서 이 구간만 정확히 가져오면 방의 만족도가 급격히 오른다. 예약 목록에서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현재 곡의 첫 후렴을 마치는 순간 리모컨의 넘김 버튼을 눌러 새로운 곡의 전주로 깔끔하게 진입하면 체감상 DJ 믹싱처럼 들린다. 강남퍼펙트처럼 리모컨 반응이 빠른 시스템은 이 타이밍 맞추기가 수월하다.

주제별 메들리 레시피, 실제로 잘 돈 조합들

레트로 감성과 요즘 그루브의 접점

복고 신스와 디스코가 섞인 곡들은 서로 결이 비슷해 연결했을 때 반응이 좋다. 첫 곡은 영어 가사가 많고 박자 물입이 쉬운 디스코 팝을 고른다. 전주가 뜨는 동안 박수 두 박자를 맞춰 주고, 첫 후렴을 깔끔히 마치면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간다. 이어서는 뉴트로 무드의 걸그룹 히트곡으로 부드럽게 상승한다. 랩 파트는 멤버 한 명에게 몰아주고, 나머지는 훅에서 떼창으로 받쳐 주면 빈틈이 없다. 세 번째 곡은 후렴이 짧고 중독성 강한 곡으로, 후렴을 두 번

만 반복하고 바로 다음 곡으로 넘겨 준다. 마지막은 떼창과 구호가 많은 곡으로 마무리한다. 방 안에 6명쯤 있으면, 마이크 없이도 두세 명은 구호만으로 충분히 소리를 채울 수 있다.

보이그룹 파워 러시

힘 있는 킥과 베이스가 중심인 곡들은 전주만 들어도 환호가 터진다. 첫 곡은 모두가 아는 초대형 히트곡으로 간다. 여럿이 동시에 뛰는 것이 포인트라, 전주 4마디 동안 동작을 맞출 시간을 잠깐 주면 좋다. 두 번째 곡은 구호와 손짓이 큼직한 노래를 골라 마이크를 가진 사람이 구호를 리드하고, 나머지는 콜 앤 리스폰스로 채운다. 세 번째는 랩 중심의 곡으로 숨을 정리하면서도 텐션을 유지한다. 랩이 부담스러우면, 원곡의 가사를 모두 따라하려 애쓰기보다 두 음절마다 박수로 리듬을 짚개면서 키워드 위주로 던지는 것이 현장에서는 더 멋지게 들린다. 마지막 곡은 후렴 고음이 짧고 명료한 노래가 좋다. 길게 끌지 않고 타격감 있게 치고 빠지는 게 핵심이다.

2세대 감성으로 분위기 스위치

세대를 섞어 즐기는 자리에서는 2세대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핵심 후렴들을 한데 묶으면 세대 간 장벽이 녹는다. 다들 아는 포인트 안무가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포인트 안무만 살짝 보여 주고, 후렴이 나오면 방 안 전원이 그 동작을 따라 하게끔 유도하자. 가사보다 동작이 더 중요하다. 후렴을 두 번 돌리고 파트를 넘기는 템포가 관건이다. 오래 끌면 지루해지고, 너무 빨리 넘기면 아쉬워진다. 체감상 80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았다.

숏폼 바이럴 흑 모음

최근 유행한 숏폼 중심의 흑들은 전체 곡을 부르기보다 그 20초 안팎의 구간을 연결하는 편이 반응이 더 뜨겁다. 첫 흑의 강렬한 리듬을 맛보고 다음 곡의 흑으로 바로 건너뛰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전환 속도다. 20초 단위로 과하게 잘라 넘기면 집중이 깨진다. 한 곡당 흑 2회 반복까지만 가자. 이때 마이크를 최소 3개 돌리면 공백이 줄어든다. 숏폼 흑의 어택이 센 만큼, 에코 값을 살짝 낮춰 또렷하게 치고 나가면 반주에 묻히지 않는다.

혼성 파티에서 무난하게 먹히는 합의안

남녀 음역 폭이 서로 다른 자리라면, 남성 랩 기반 곡과 여성 후렴 중심 곡을 교차로 배치하는 게 좋다. 열 명 내외이면 랩 담당 2명, 고음 담당 2명, 흑 떼창 3명, 구호 담당 3명 식으로 역할을 잡는다. 첫 곡은 남녀 모두 아는 중간 음역대의 떼창용 노래로 깔고, 두 번째에서 여성 파워 후렴으로 끌어올린다. 세 번째는 남성 랩과 저음이 중심인 곡으로 살짝 눌러 주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구절이 많은 곡을 연속 배치해 고점을 만든다.

메들리 준비, 방에 들어가기 전 확인할 것

- 참가자 수와 대략의 성향을 파악한다. 랩을 좋아하는지, 고음을 선호하는지, 안무를 즐기는지 정도만 알아도 곡 배치가 달라진다.
- 예약 목록 기능을 테스트한다. 반응 속도가 느린 기기에서는 곡과 곡의 연결을 2초 정도 여유 있게 잡는 편이 안전하다.
- 마이크 에코와 키를 맞춘다. 에코는 메들리에서는 과하면 흐림이 생긴다. 키는 한 곡마다 바꾸지 말고, 메들리 묶음마다 통일하는 쪽이 현장에서 수월하다.
- 방의 모니터와 스피커 위치를 체크한다. 반사가 심하면 가사 타이밍이 밀려 들릴 수 있다. 스피커에 너무 바짝 붙지 않도록 동선을 미리 정한다.
- 역할 분배를 가볍게 정해 둔다. 랩 담당, 후렴 담당, 구호 리드, 예약 담당을 나눠 두면 전환이 깨끗하다.

키 전환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요령

- 다음 곡 전주에서 하모니로 한 음만 길게 깔아 준다. 이어지는 반주와 겹치면 키 전환의 이질감이 줄어든다.

- 브릿지의 말하는 톤으로 전환한다. 말하듯 던지는 두 마디가 있으면 키 점프를 덜 느낀다.
- 구호를 이용한다. "렛츠고", "원 모어 타임" 같은 짧은 외침을 끼워 넣으면 분위기가 매끄럽게 넘어간다.
- 반 박자 쉬고 들어간다. 공백의 반 박자가 키 위화감을 씻어 준다.
- 마지막 음을 낮춰서 정리한다. 올려서 끝내면 이어지는 곡 첫 음이 불안해지기 쉽다.

예시 메들리 15분짜리 플랜, 현장에서 먹히는 흐름

첫 3분은 몸을 푸는 시간으로 잡는다. 전주가 짧고 박수 유도에 좋은 노래로 시작해서, 가사에 부담이 적은 영어 섞인 후렴을 가져간다. 이때 마이크는 2개만 쓰고, 나머지는 손뼉과 구호로 채우면 숨을 아낄 수 있다. 첫 후렴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곡 전주를 띄워 오디오의 빈 틈을 없앤다.

다음 5분은 메인 러시다. 점프와 떼창이 중심인 곡을 연속으로 배치한다. 고음 담당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톤은 한 곡 당 2회 이하로 끊어 준다. 랩 파트가 오면 예약 담당이 화면 우측 하단의 넘김 버튼 위치로 손을 가져다 놓는다. 브릿지에서 세컨 마이크가 "다 같이"를 외치고, 후렴 직전에 마이크를 한 번 더 바꿔 준다. 이 시점에서 모두의 체온이 올라간다. 물을 한 모금씩만 돌려 마시되, 곡 사이에 정수기까지 다녀올 시간은 만들지 않는다. 넘김 타이밍이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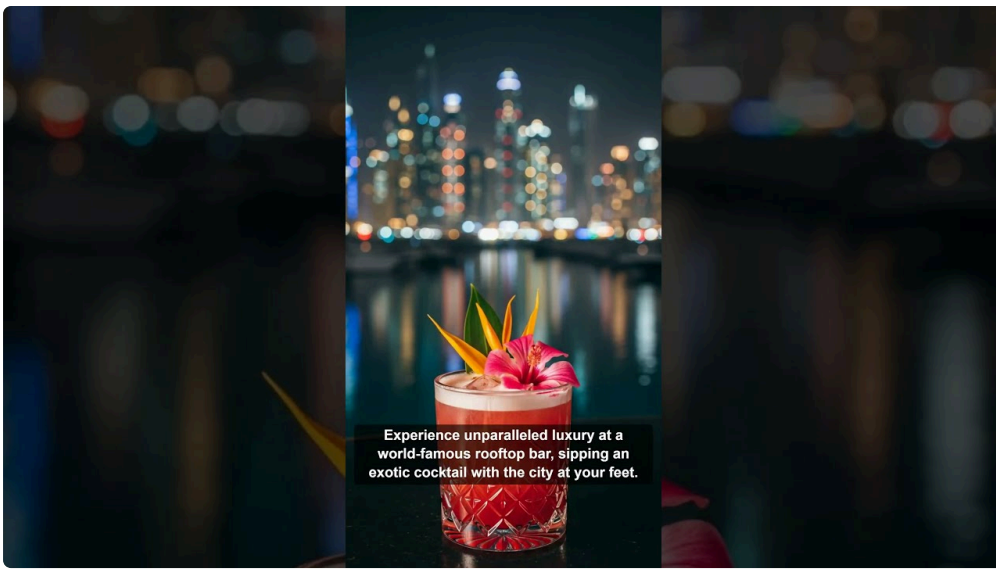
마지막 7분은 피날레와 양코르 느낌으로 운영한다. 모두가 아는 초대형 히트곡의 후렴을 연속으로 이어 붙인다. 각 곡의 간주가 길면 20초 내로 잘라 넘어가고, 만약 방의 열기가 최고조라면 한 곡만은 풀코러스로 길게 가져간다. 이때 조합은 각자 선호가 다르지만, 경험상 하나의 그룹 세계관으로만 밀어붙이기보다 두 세대, 두 그룹을 섞는 편이 참여 인원이 늘어났다. 엔딩에서는 예약 목록을 한 곡 남겨 둔 채로 여운을 준다. 점수 모드가 켜져 있다면 피날레 곡 한 곡에서만 점수를 받도록 하고, 메들리 구간에서는 점수를 끄면 가사 타이밍 지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노래방 시스템을 메들리에 맞게 세팅하는 법

대부분의 국내 기기는 예약 목록, 곡 넘김, 키 조절, 템포 조절, 점수 모드 on/off, 에코와 마스터 볼륨 정도를 버튼 몇 개로 컨트롤한다. 메들리에서 중요한 건 반응 속도와 가사 자막의 싱크다. 템포 조절은 원곡보다 한 단계 빠르게 하면 랩은 편해지지만 발음이 뭉개질 수 있고, 한 단계 느리게 하면 떼창은 약해진다. 실제로는 템포를 건드리지 않는 편이 안전했다. 키 조절은 +2나 -2까지는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이상이면 반주 악기의 질감이 인위적으로 느껴지니 메들리 안에서는 가급적 피한다.

에코는 공간감이 살면 기분은 좋지만, 빠른 흑에서 가사가 **퍼펙트가라오케** 먹먹하게 뭉친다. 댄스 메들리에서는 에코 레벨을 낮추고, 대신 마스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 반주와 목소리를 분리해 주자. 마이크는 지향성이 좁은 쪽이 피드백이 덜 뜬다. 스피커 앞을 가로지를 때는 마이크 헤드를 살짝 위로 들어 피드백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예약 목록은 8곡 내외를 담아 두고, 중간중간 방의 텐션을 보며 2곡 정도를 교체한다. 대부분의 퍼펙트노래방, 퍼펙트가라오케 지점에서는 리모컨과 패널 양쪽에서 곡 넘김이 가능하다. 방이 넓으면 패널 담당을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다. 강남퍼펙트처럼 손님 회전이 빠른 지점에서는 인기곡 코드가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첫 곡을 찾을 때는 초성 검색보다 영어 제목 검색이 더 빨리 잡히는 곡들이 존재하니, 두 방식 모두 익혀 두면 시간 손해를 줄인다.



사람마다 다른 음역과 성향, 현실적인 파트 분배

메들리의 성공은 파트 분배에서 절반이 정해진다. 고음을 원하는 사람이 둘이라면 번갈아 롱 톤을 맡기고, 랩을 즐기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랩이 두 곡 연속으로 나오지 않게 배치한다. 안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 안무가 눈에 띄는 곡을 배정하고, 마이크 구호 리드는 성량이 큰 사람에게 맡긴다. 이때 역할을 너무 딱딱히 나누면 갑자기 분위기가 올랐을 때 융통성이 떨어진다. 파트는 기본 방향만 두고, 현장에서 손짓으로 즉흥 배치를 바꾸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성별에 따른 키 차이는 디테일로 보정한다. 여성 음역에서 남성이 후렴을 받쳐야 할 때는 가사를 다 부르려 하기보다, 후렴 첫 음을 옥타브 아래로 깔고 2, 4박에 맞춰 키워드를 짧게 던지는 게 더 깨끗하다. 남성 고음 곡에서 여성 파티원이 합류할 때는, 메인 멜로디를 남성이 가져가고 여성은 하모니를 3도 위로 짧게 엮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이 하모니는 길게 끌면 불협이 날 수 있으니, "키워드 - 쉬고 - 키워드"처럼 호흡을 두고 포인트만 짚는다.

곡 전환 실패를 복구하는 법

누구나 한 번쯤은 넘김 타이밍을 놓치거나, 예상보다 전주가 길어서 분위기가 살짝 꺼지는 경험을 한다. 이때 필요한 건 빠른 포기과 다음 타이밍 포착이다. 전주가 길다고 느껴지면, 화면의 가사 색이 바뀌는 첫 박에서 마이크를 잠깐 내린다. 그리고 다음 마디에서 구호로 재진입한다. 반대로 후렴이 갑자기 높아져 목이 당항하면, 가사를 멈추고 박수로 리듬을 살린 뒤 코러스로만 들어가도 된다. 현장에서는 정확성이 아니라 에너지와 일관성이 더 크게 들린다.

가사 실수는 당황하지 말고 라임만 맞추면 된다. 원문 대신 비슷한 모음으로 흥얼거리다가, 후렴의 첫 단어만 정확히 맞추면 듣는 사람은 대부분 실수를 인지하지 못한다. 랩 실수는 두 박을 비우고 마지막 두 음절만 정확히 박자에 없으면 그루브가 살아난다.

소도구와 동선,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

탬버린 하나, LED 막대 하나만 있어도 메들리의 시각적 몰입이 달라진다. 다만 소도구를 흔들 때 마이크 헤드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속성 잡음은 반주보다 크게 들린다. 동선은 스피커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시간대를 최대한 줄인다. 부득이하게 지나가야 할 때는 마이크를 입에서 떼고 헤드를 위로 향하게 들어라. 피드백이 날 확률이 확 줄어든다.

춤 동작은 풀 버전 안무가 아니어도 좋다. 포인트 동작 4개만 정리해 와도 방의 몰입이 올라간다. 모두가 할 수 있는 동작, 예를 들어 손가락 하트, 박수 두 번, 손가락 스냅, 점프 같은 기본 동작을 곡별로 하나씩만 지정해 두면, 안무

에 자신 없는 사람도 곧바로 참여한다.

바이럴과 떼창의 균형, 너무 유행만 좇지 말 것

숏폼으로 인기를 얻은 곡들은 강력하지만, 전체가 곡으로만 엮인 메들리는 여운이 짧다. 최소 한 곡은 멜로디 서사가 있는 노래를 중간에 넣어야 다음 곡이 더 강하게 들린다. 반대로 오랜 명곡만 붙이면 신선함이 떨어져 젊은 층 참여율이 낮아진다. 경험상 5곡짜리 묶음이라면, 바이럴 곡 2, 초대형 떼창 2, 그루브 중심의 연결고리 1 정도가 밸런스가 좋았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실전 답변

메들리 중간에 발라드를 끼워 넣어도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가능하긴 하지만,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 숨을 돌리려면 굳이 발라드를 고집하기보다 템포는 유지하면서도 멜로디 위주의 곡으로 잠시 눌러 주는 편이 덜 깨진다. 그래도 발라드를 넣고 싶다면 90초 이내로 후렴만 가져가고, 다음 곡 전주를 미리 띄워 줘야 공백이 없다.

또 하나는 랩 파트 처리다. 가사를 전부 숙지하지 않았다면, 초반 두 마디는 라임만 살짝 따라하고, 중반에 핵심 펀치라인을 정확히 발음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노래방 반주는 원곡보다 악기가 단순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수록 발음의 어택과 리듬 감각이 더 또렷이 들리니, 음정보다 박자를 먼저 맞춘다는 생각이 유리하다.

고음 피로를 줄이는 요령으로는 음절 분할이 있다. 길게 끌어야 하는 모음을 두 음절로 쪼개 "아 - 아"처럼 짧게 던지면 성대 부담이 줄어든다. 마이크 거리를 5에서 10센티 정도 벌리면 과도한 에코와 클리핑도 줄어든다.

장소 선택의 디테일, 사운드와 공간이 메들리를 바꾼다

방 크기가 작으면 반주가 웁웁 울리고, 큰 방이면 소리가 퍼져 박자감이 흔들린다. 4명 이하면 소형, 5에서 8명은 중형, 9명 이상은 대형 방이 이상적이다. 퍼펙트노래방이나 퍼펙트가라오케처럼 방음과 마이크 상태 관리가 좋은 곳에서는 마이크 게인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지 않아 고음 클리핑이 적다. 강남퍼펙트처럼 접근성이 좋은 지점은 주말 저녁 대기가 생길 때가 있어, 메들리 위주로 놀 계획이라면 예약 시간을 앞당기는 게 현명하다. 다만 특정 매장의 기기 배치나 업데이트 주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현장에서 먼저 한 곡으로 사운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

각 테마별 추천 곡 조합, 디테일한 운영 팁

걸그룹 레트로 묶음은 전주에서 박수를 유도하고, 혹은 가볍게 허밍하듯 시작해 두 번째 곡에서 성량을 늘린다. 첫 곡은 영어 곡이 있으면 참여 문턱이 낮다. 두 번째 곡에서 안무의 포인트를 한 동작만 맞추자. 세 번째 곡은 랩과 보컬이 절반씩 섞인 경우가 좋은 완충 역할을 한다. 네 번째에서 후렴 고음을 잠깐 빌드업한 다음, 다섯 번째는 모두가 함께 외칠 수 있는 구절이 반복되는 노래로 마무리한다.

보이그룹 파워 러시에서는 베이스가 깊고 킥이 앞에 나오는 반주가 많다. 이럴 때 에코를 한 단계 내리고, 마스터를 미세하게 올려서 목소리를 앞으로 보낸다. 구호는 박자 안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렛츠고"를 박자 밖에서 던지면 반주와 충돌해 킥이 무뎈다. 화면의 가사 색이 바뀌는 그 순간에 구호를 얹으면 박자감이 살아난다.

숏폼 곡 묶음에서는 마이크를 입에서 아주 가깝게 붙인다. 짧은 곡은 자음의 어택이 생명이다. 자음을 또렷이 치고 모음을 짧게 닫아 주면, 스피커에서 반주와 목소리가 분리되어 들린다. 과한 비강 공명은 마이크에서 금방 피로감을 만든다. 곡 사이사이에 숨을 크게 쉬고, 마이크를 잠깐 옆으로 빼 에코를 줄인 뒤 다음 곡을 맞아 주자.

혼성 합의안에서는 곡 사이의 온도차를 관리해야 한다. 남성 저음 랩에서 여성 고음 후렴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브릿지성 멘트나 구호를 끼워 넣는다. 이 한 마디가 없으면 갑작스러운 음역 점프로 참가자들이 움찔한다. 반대로 여성 후렴에서 남성 랩으로 가는 전환에서는 박수를 길게 두 번만 쳐 주고, 랩의 첫 단어를 크게 던지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된다.

매너와 안전, 즐거움을 오래 가게 하는 조건

메들리는 에너지가 높은 놀이지만, 결국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노는 일이다. 바닥의 음료를 치우고, 땀으로 미끄러운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넘어짐을 줄인다. 점프 동작은 두 발을 모아 바닥에서 2에서 3센티만 드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전력 점프는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크고, 스피커 피드백을 유발할 때도 있다. 마이크 케이블이 있는 방에서는 케이블이 발목에 걸리지 않도록 마이크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지 말고, 케이블을 느슨하게 풀어 바닥을 따라 이동시키는 편이 안전하다.

볼륨과 에코는 다음 팀을 위해 기본값으로 돌려 놓자. 방을 나가기 전, 쓰레기는 한 번에 모아 문 옆에 두면 직원이 정리하기 편하다. 이런 기본 매너가 지켜지면, 단골이 모이는 매장은 자연스럽게 시스템 관리가 좋아지고, 결국 우리가 즐기는 사운드 퀄리티로 돌아온다.

마무리 메모, 직접 조합하고 고쳐 쓰는 즐거움

좋은 메들리는 정답이 없다.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듣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두세 곡을 바꾸는 유연함이 핵심이다. 방 안의 반응은 솔직하다. 구호가 커지면 조금 더 달려도 좋고, 숨이 가쁘면 한 곡만 쉬어가도 된다. 예약 목록과 손동작, 마이크 운용이 합을 만나면 노래방은 작은 콘서트가 된다. 퍼펙트노래방이나 퍼펙트가라오케처럼 시스템이 받쳐주는 곳을 고르면, 사소한 디테일이 음악으로 다 살아난다. 오늘의 조합을 기록해 두고, 다음에 두 곡만 바꿔 다시 돌려 보자. 메들리는 반복해서 다듬을수록 더 또렷하고 더 즐거워진다.